

해제: 민속학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모습과 일관된 시점

김광식

시마무라 다카노리(島村 恭則) 교수는 간세이가쿠인대학 사회학부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보다 무서운 한국의 괴담(日本より怖い 韓國の怪談)』(河出書房新社, 2003), 『「살아가는 방법」의 민속지(「生きる方法」の民俗誌: 朝鮮系住民集住地域の民俗學的研究)』(關西學院大學出版會, 2010) 등이 있다. 1990년대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한국에서도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중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와 일본·동아시아 연구의 과제」(『동아시아비평』 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일본의 축제: 「일본민속학」재고」(『국제아세아민속학』2, 국제아세아민속학회, 1998) 등을 들 수 있다.

이미 민속학 개념을 둘러싼 연구 성과물은 「포클로어 연구란 무엇인가」(『일상과 문화』 Vol.4, 일상과 문화연구회, 2017)로 한국어 번역되었다. 「포클로어 연구란 무엇인가」에서는 20세기 민속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21세기의 포클로어 연구(Folkloristics 또는 Folklore Studies)를 개념화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민속학이란 어떤 학문인가?」(『실천민속학 연구』 32, 실천민속학회, 2018), 「디오니소스와 버내쿨러 - 민속학적 시각이란 무엇인가?」(『제41차 실천민속학회 전국학술대회 - 민속학으로 일상을 묻다』, 실천민속학회, 2019년 7월 7일 발표집), 시마무라 다카노리 외, 『문화인류학과 현대민속학』(민속원, 2020)에도 관련 논고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 논문(「民俗學とは何か—多様な姿と一貫する視点」)은 古家信平 편, 『현대민속학의 필드워크(現代民俗學のフィールドワーク)』(吉川弘文館, 2018)에 수록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포클로어 연구에서 세계민속학을 상징한 글로벌 버내쿨러 스터디(Global Vernacular Studies, GVS)로서의 단계 진입을 천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패권, 보편, 중심, 주류라는 사회적 위상과는 다른 차원의 인간 삶(生)의 이해를 추구한 대(對) 계몽주의, 대(對) 패권주의로서의 민속학의 성립과정을 고찰하고, 야나기타의 독자적 사회변동론으로서의 민속학을 도출한다. 저자는 일본의 대표적 민속학자 시게노부 유키히코(重信幸彦)와 이와모토 미치야(岩本通弥)의 논의에 현상학적 생세계론 및 근년의 버내쿨러 연구를 발전시켰다. 더불어 이와모토의 구체적인 논의는 한국어판 「신판(新版)·「민속」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속학인가」(『일상과 문화』 7, 201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일국(一國) 민속학의 문화인류학으로의 전개가 아니라, 오히려 각국 민속학의 발전으로 세계민속학=글로벌 버내쿨러 스터디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지적한다. 「포클로어 연구

란 무엇인가」(『일상과 문화』 4, 2017)와 이 글을 통해, 버네클러 스터디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은 근대(현대)의 변화(변동)보다는 과거의 원형(고유)을 찾으려 했던 20세기 민속학을 넘어서는 작업이 될 것이며, 일본민속학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민속학으로서의 한국민속학의 발전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